

임실N키즈카페, 무료 놀이시설 인기

아이들 핫플레이스로 각광... 설 연휴 방문객 이어져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로 자리 잡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있는 임실엔 키즈카페가 아이들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안에 위치한 임실 N키즈카페는 지난해 10월 치즈축제와 산타축제를 이어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명소를 인기를 끌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임실엔 키즈카페에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이용객들로 붐볐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9일 70여 명이 시작으로 연휴 기간 내내 일일 평균 100여 명의 영유아들이 찾아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억원 사업비를 투입, 옛 치즈판매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개장한 키즈카페는 5개월 만에 7천여 명의 영유아들이 다녀갔다. 마땅한 실내 놀이터가 없는 지역에 명실공히 놀이터로서의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개별 이용자와 더불어 관내 유치원에서 단체 방문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요 놀이시설로는 압석등반, 주방 놀이, 볼 풀장, 정글집 등이 구비되어 있고, 특히 낚시 놀이는 부모와 함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에서 설 명절을 쇠기 위해 시택에 방문하면서 치즈테마파크에 왔다는 한 어머니는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아이들이 놀이에 안성맞춤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아이들과 방문하셔서 키즈카페도 이용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국내 관광객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3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한 SNS 인증이벤트를 추진한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의 랜드마크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방문, 좋은 추억을 남기는 SNS 인증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우수 게시물 50명을 선정하여 4만원 상당의 임실치즈산물세트를 지급하며, 당첨자는 4월 5일 임실군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다. /임실=진홍경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안에 위치한 임실N키즈카페. (사진=임실군청 제공)

순창, 청렴도 향상 '청렴 문자알리미' 서비스 운영

12월까지 진행

순창군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청렴 문자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전 직원 8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음주운전 예방 등의 중요한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청렴 문자알리미'는 매월 8회에 걸쳐,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내용을 매주 금요일에, 청렴 표어 및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는 매주 월요일에 전송된다.

순창군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서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군은 이러한 주기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군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동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 문자알리미'의 도입은 순창군이 공직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 6일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전 심의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농업인 단체, 농기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계획 적절성, 농기계 형식 선정 등 총 다섯 가지 안전을 심의·선정했다. 군은 올해 파종기 등 11종 71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하고 주산지 일관기

일관기계와 재배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작업 대행료 및 인부임 책정 등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대행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38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경 기자



남원시와 남원의료원이 15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의료원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원 소유 부지 무상대부 협약 체결

남원시-남원의료원, 2025년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면적 확대

남원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까지 예산 91억원(국도비 76, 시비 15)을 투입, 고죽동(200-4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 규모(산모실 13실)로 건립될 예정이다.

남원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인 한 곳도 없어 원정출산의 불편을 겪는 많은 출산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 수준의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

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부지 추가부지 확보에 나섰으며, 여기에 남원의료원도 의료원 소유 일부인 2,000㎡ 부지를 무상제공으로 힘을 보탤다.

이와 관련 남원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남원시는 제공된 부지에 모자건강 안전시스템을 갖춘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의료원과 함께 다양한 공공보건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지역 유일 분만산부인과를 보유한 남원의료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립 규모를 확대하여 산모에게 전국 최고의 고품격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23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는 쌀 생산 농가의 상토 확보 및 육묘 난을 해소하기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받으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재배면적 1,000㎡이하 농가와 관의 출입 경작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 8일 단가 입찰을 실시, 상토의 유형 6종(경량,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트)에 대해 공급단가와 보조단가를 결정했으며, 현재는 주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중에 있다. 남원시는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시비 16억을 투입하여 관내 논벼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에게 3월 말까지 공급 완료를 계획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소원등 매달기 행사 참여 신청

남원시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9회 춘향제에서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소원 메시지가 적힌 '소원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하는 신청을 받는다.

제9회 남원춘향제는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 COLOR 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공연예술 및 시민참여 축제다. 소원등 매달기 행사에는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5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자 중 선정된 사람만 직접 작성한 소원 메시지의 소원등으로 춘향제 기간 동안 요천수변 등지에 불을 밝혀 소원등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용은 개당 9천 원이며, 사전 신청을 놓친 사람들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여 소원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다양한 색의 소원등으로 아름다운 5월의 밤을 연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활성화 총력

남원시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봉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거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장 나눔, 파우치·화분 등 제작 나눔,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7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60회 이상 운영하였고, 제9회 춘향제, 2023 남원세계드론제 등 남원시의 주요한 축제 및 행사에 3,0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남원시의 특성 및 주민 욕구에 적합한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재난안전체험 운영 등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